

광양시, 피부에 와닿는 청년정책 펼친다

내년부터 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 4개 분야 집중 지원 조례 제정 통해 구직 수당·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 시책 추진

광양시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청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광양시는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개 분야로 나눠 청년들의 가장 급한 일자리 해결부터 신혼집 마련, 여가 생활 지원 등 청년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 정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7일 광양시에 따르면 청년의 주거 안정과 부채 경감, 고용 확대 등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청년시책을 발굴을 위해 내년부터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0월 한 달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년 시책 발굴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했으며, 젊은 직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시책 간담회도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청년활동 지원사업 3건,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사업 8건, 주거환경개선사업 10건, 청년 문화공간 조성사업 10건 등 총 82건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됐다.

광양시는 현재 청년대상 사업과 젊은 세대 지원 등을 주제로 한 아이디어 공모로 접수된 사업을 신중히 검토해 사업별 문제점을 진단하고 신규과제를 선정할 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광양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은 ▲전남형 청년인턴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스위스 도제식교육 ▲취업사관학교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특성화고 대상 기업체 순회 설명회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등이다.

광양시는 앞으로 청년정책을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총 4개 분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설자리' 분야에는 청년정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과 청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역량강화 시책을 추진한다.

'일자리' 분야에는 청년 창업지원 및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청년취업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정책 중간지원 조직을 마련할 계획이다.

'살자리' 분야에는 청년 주거환경 개선과 싸고 튼튼한 주택공급 및 전세자금 지원, '놀자리' 분야는 청년 학교 운영으로 청년 활력 공간을 만들고, 청년예술가 창작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시의원, 전문가 및 광양시 주요 청년정책 소관 부서장 등이 참여하는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 청년정책 추진에 주력하기로 했다.

광양시는 특히 소규모 예산으로 우선 도입 가능한 시책도 적극 검토중이다.

시는 우선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학원 수강료, 교재구입비 등을 위한 구직 지원수당을 카드포인트 형태로 월 20만원씩 6개월 지원하는 한편 광양 거주 임산부(임

신 8개월 기준) 1700여명을 대상으로 축하 메시지와 함께 10만원 상당의 필요용품 상자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서천번, 중마동 23호 광장 등 3~4곳의 다중집합장소에서 'Busking in 광양' 공연 참여 청년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실비보상을 지원한다.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주택마련을 위한 전세자금 이자를 세대당 200만원까지 총 100쌍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광양시는 이 외에도 만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폭발, 화재, 뺑소니, 강도, 대중교통 사고 등 사고에 대비해 아동보호를 위한 안전보험을 지원하고, 13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는 심야 어린이 불보미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불안정한 단순 일자리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지원을 확대해 젊은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문화가 있는 날' 아이들 손 잡고 동화뮤지컬 속으로 '페페의 꿈' 30일 두차례 공연

광양시가 11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로 동화뮤지컬 '페페의 꿈'을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7시 30분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된다.

동화뮤지컬 '페페의 꿈'은 음악극 창작집단 '툭방'이 제작한 작품으로, 주인공 페페가 '잠자는 숲속의 공주' 등 여러 동화 속을 여행하며 겪는 모험을 중심으로 공연된다.

특히 스토리와 어울리는 아름다운 일러스트 영상과 눈앞에서 생생하게 연주되는 클래식 공연을 통해 아이들이 어렵고 딱딱하게 생각하는 클래식을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작품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단체 관람객을 대상으로 광양문화예술회관 사무실에서 사전예매를 진행 중이며, 어린이와 성인 구분 없이 1인 3000원 지정좌석제로 판매한다. 한편 공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양문화예술회관(061-797-3602)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중마동~금호동 연결 해상보도교 완공 눈앞

광양시 중마동과 금호동을 연결하는 해상보도교가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길이 300m, 폭 4m 규모의 보도교 공사는 지난 2013년 시작돼 현재 공정률 94%를 보이고 있으며, 완공되면 5분 내에 양 지역을 오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리 주변으로는 1만3375㎡의 수변공원을 조성 중이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광양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광양시는 "지난달부터 가을철 산불방지 비상체제가 돌입하고 내년 5월 15일까지 종합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시청 산림과와 읍면동사무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중이며, 전문진화대 29명과 산불감시원 41명을 배치하고 산림 연결지 소각 등을 집중 감시·단속하고 있다. 또 감시초소 4개소와 무인감시카메라 14대, 산불예방 무인 방송기 8대, 산불감시·진화용 인차헬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산불예방과 진화대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산불 초동 진화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주 수요일 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불 진화 훈련을 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등산로 입구에서 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시는 내년 5월 15일까지 등산로 2개구간 13.3km를 폐쇄하고 산림 9094ha에 대해 입산통제 및 화기·인화·발화물질 소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설 방침이다.



서희원 광양시 산림보호팀장은 "산불 대부분은 산림 연결지의 눈·발두렁과 영농부산물 소각하는 경우나 입산자의 실화 등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다"며 "가을

철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성이 큰 만큼 산불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자원봉사자의 날 5만8000명 화합 마당

19일 기념식·페스티벌

광양시는 "19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 어울림체육관에서 '제11회 광양시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및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자원봉사자의 날(12월 5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이며, 올 한해 이웃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광양 지역 5만8000여 자원봉사자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은 광양여자고등학교 댄스 동아리와 포에버윈드오케스트라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이 진행될 예정이며, 자원봉사자들의 재능 나눔 공연과 어울림 공연도 펼쳐진다.

또 부대 행사로 자원봉사 활동 물품 전시와 자원봉사 활동 사진전, 먹거리 자원봉사 등이 준비돼 있다.

하현정 광양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한 해 동안 대가 없이 묵묵히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한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나눔과 배려 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교감하고 힐링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전기차 충전소 위치 한눈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광양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생활지리정보시스템(http://gis.sun.go.kr)에 충전소 위치 정보 DB 탑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생활지리정보시스템에 탑재된 충전소는 중마버스터미널 주차장, 광양시 2청사 보건소 앞, 금호동 백운소공원 주차장, 부산방향과 순천방향 남해고속도로 삼진강휴게소, 중마동과 광양

읍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기아자동차 신광대리점 등 총 8개소다.

이번 사업으로 광양시민 누구나 광양시 홈페이지에서 전기자동차 충전소 위치를 파악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새로 설치되거나 변경되면 즉시 자료를 수정해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광양=김경원기자 kkw@



201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novita A KOHLER COMPANY

novita is COMFORT

2016.10.04 ~ 2016.11.30

품격1 **참 편안한 비데 Comfort**



NEW

279,000 / 249,000

※브레프 파워 액티브 5종

품격2 **합리적인 가격으로 실속형 비데 특가**



159,000원 / 159,000원

품격3 **새 비데를 할인가로 비데 보상 판매**



219,000원

※타사 제품 가능

노비타 비데로 욕실의 품격을 높여보세요

행사비데 구입시 1년치 필터(2개)증정!

※상기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본사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www.novita.co.kr

구입문의 | 비데프라자 (062)515-1144